

에틸렌 가격 반등 가능성 “크다”

호남 HDPE 재가동으로 공급 줄어 ... 4월 정기보수로 수급타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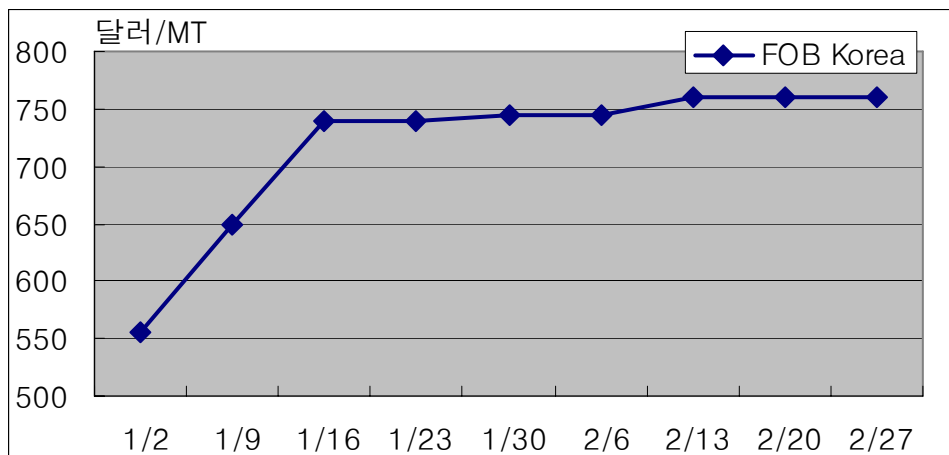
에틸렌(Ethylene) 가격이 FOB Korea 톤당 760달러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정체됐다.

그러나 에틸렌 무역상은 “3월말 Spot 거래가 시작됐으나 현재 시장에 나오는 에틸렌이 거의 없으며 4월 거래물량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에틸렌은 최근 PE(Polyethylene)가 CFR Asia 톤당 900달러대에 거래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업 및 외국 생산기업들이 플랜트를 풀가동하고 있으며, 2004년 사우디와 동남아시아에서 PE와 EO/SM 병산플랜트가 증설됨에 따라 에틸렌 공급이 2003년에 비해 줄었다.

또 호남석유화학이 2월15일부터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플랜트의 시험에 들어가 호남석유화학에서 2003년 10월3일 HDPE No.3 플랜트 폭발사고 이후 공급했던 월 8000톤의 에틸렌도 줄었다.

Ethylene 가격추이



시장 관계자들은 PE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해 현재 가격에서 3-4월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한국의 정기보수 일정이 에틸렌 및 프로필렌(Propylene) 수급에 영향을 주어 추가 반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에틸렌 무역상들은 “거래물량이 적은 탓에 실제 Deal Done된 가격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3월 들어 시장 분위기가 2월말 하락한다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추가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3월부터 FOB Dubai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프타 가격도 3월 접어들면서 C&F Japan 톤당 350달러로 상승해 국제유가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8>